

“섬 문화는 씨앗...꼭 지켜 후손에 물려줘야”

■ ‘섬문화답사기-진도·제주편’ 펴낸 김준 광주전남연 문화관광 연구실장

우리 속담 중에 ‘남이 장에 가니까 씨 오쟁이 지고 따라간다’는 말이 있다. 뚜렷한 목적 없이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행태를 이르는 말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양상이 적지 않다.

“자본에 섬을 입맛대로 요리하게 맡길 게 아니라 재래종 씨앗을 받아 후대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그는 이십대 초반 격렬했던 조각쟁이의 뜨거운 기억을 품고 암태도를 찾았다가 섬에 매혹됐다. 바로 김준(사진) 광주전남연구원 문화관광연구실장이 주인공이다.

이번에 그가 펴낸 ‘섬문화답사기-진도 제주 편’ (보너스)은 “치열한 생존과 일상을 기록한 섬들의 연대기”다. 이전에도 ‘섬: 살이’, ‘섬문화답사기-여수 신안편’ 등을 펴낸 바 있는 그는 전남대 사회대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섬의 공동체 연구를 해왔다.

저자는 한마디로 ‘섬 같은’ 사람이다. 순수해 보이는 표정 이면에 우직하면서도 울퉁한 면을 지니고 있다. 섬문화 답사를 책으로 엮어내게 된 것은 지난 2012년부터. 당시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기치로 여수 엑스포가 열리면서 섬의 가치를 조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초 이번 ‘진도, 제주 편’은 2014년 무렵 초고 가 끝난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추가 조사를 하려고 한참 진도군 조도면 섬들을 드나들 때 ‘세월호’ 사건이 터져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긴 호흡을 필요로 했다는 의미다.

“섬 문화는 씨앗과 같습니다. 섬을 걷고 주민을 만나고 그들 삶을 기록하는 것은 생태와 문화 속에서 얻어낸 지혜를 씨오쟁이에 담아주려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 씨오쟁이에서 섬 소설을 꺼낼 것이고, 누군가는 시를 꺼내고, 또 어떤 이는 그림을

“자본 개발에 맡기면 사라져”
“진도 씨김국이 감동 주는 것은 섬사람들 삶이 녹아 있기 때문”
치열한 생존과 섬살이 기록

그리고 노래를 그릴 것입니다. 각자 재능대로 섬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천혜의 해안을 거느린 전남은 블루 이코노미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지난 8월 목포와 신안에서 개최된 ‘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 행사에는 약 15만 여명의 인파가 몰려 상황을 이뤘다.

“보통 사람들은 신안, 진도, 완도, 제주도도 그렇지만 ‘그 섬이 그 섬이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고 공감해야 ‘다름’이 지켜지죠. 비슷함을 찾다보니니까 비슷한 형태로 바뀌는 게 아닐까요.”



그는 섬사람들 문제라기보다 “섬에 가는 사람들 시각이 문제”라고 강조한다. 섬 특유의 환경, 일대면 음식이나 문화 등을 존중하고 공감해야 섬 주민들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육지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런 저런 요구를 하다보니 결국 섬이 ‘붕어빵’처럼 변하게 됐다는 논리다.



고기잡이의 기쁨과 고달픔을 달래던 조도 뱃배놀이.



(보너스 제공)

현재 진도 본섬을 제외하면 나머지 섬들은 “새데처럼 조도면에 모여 있는 형국”이다. 한 면에 35개 유인도와 119개 무인도 등등 모두 154개가 모여 있다.

김 실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섬이 분포한 것은 단연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다. 섬만 많은 것이 아니라 관매도, 주지도, 양덕도, 혈도, 병풍도 등 그 모양새가 아름답다. 베트남에 하롱베이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조도 군도가 있다”며 “대부분 바위섬이다. 바위가 많으니 땅은 얼마나 적박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부근은 물살이 거칠기로는 여느 곳에 비할 바가 아니다. 명랑해전의 울돌목, 장죽수도, 맹골수도, 거차수도 등 모두 조류 때문에 붙여진 말이다. 그러나 김 실장은 거친 바다가 고통과 아픔만을 주지 않는다고 웃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섬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만 운명을 삶으로 바꾼 것은 섬사람들이다. 씨김국, 들노래, 아리랑, 다사레기 등 진도의 민속과 소리가 감동을 주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진도 미역이나 멸치가 맛을 아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이 거센 물살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다. 그로 인해 일찍부터 진도 사람들은 “바위에 붙은 돌미역에 의지해” 삶을 꾸렸다.

저자는 화산섬을 일구며 삶을 이어온 제주 사람들의 지혜도 소개한다. “1만 2천 명이 사는 제주”에도 육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들만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음식 원형도 제주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다”며 “자주 제주다움이 육지와 비슷해지는 것이 안타깝고 속상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섬살이다. 세월호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던가. 섬살이는 경험이다. 과학보다 앞선 것이 경험이다. 어쭙잖은 지식으로 바다를, 섬을 안다고 나서서 육지 사람들의 오만에 대한 경종이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시 총감독 선정 앞당겨 해외 편딩 등 적극 나서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결산 <하>

10개월 전 선임, 준비 어려움

일반 관람객 70% 큰 힘

마케팅·홍보활동도 미흡

‘휴머니티(HUMANITY)’를 주제로 열렸던 2017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관람객과 밀착되고 산업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예술성’에 무게를 둔 광주비엔날레와 달리 ‘대중성과 산업화’의 방향성을 확고히 하면서 향후 디자인비엔날레의 지향점을 분명히 한 점은 의미있었다. 올해 관람객은 주최측 발표에 따르면 32만명이다. 이중 유료인 본 전시 관람객은 9만 5000명이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대형 행사하면 떠오르는 학생 등 단체 대신, 일반 관람객이 전체 방문자의 70%를 차지한 점은 향후 디자인비엔날레의 행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엔날레는 참여형 작품과 예년에 비해 쉽게 관람할 수 있는 전시작품이 많아 관람객들이 비엔날레와 좀 더 친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전시와 관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지만 대중성 부분이 강조되면서 박람회나 페어가 아닌, 비엔날레만이 갖고 있는 예술적 부분은 다소 소홀히 다루어져 임팩트 있는 작품이 없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올해 100년을 맞은 ‘바우하우스’ 전시는 개막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섹션이다. 주최측은 바우하우스의 역사와 함께 바우하우스 정신을 이어받은 ‘현재’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주목했지만, 앞으로 접하기 어려운 기획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바우하우스의 좀 더 다양한 면을 살필 수 있도록

‘바우하우스 100년’에 초점을 맞췄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전반적인 행사 운영은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8차례 행사를 치른 대규모 행사치고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전시 구성과 함께 행사 성공의 키워드인 홍보와 마케팅 부분은 적은 인력 속에서 고군분투했지만 한계를 노출했다.

대규모 이벤트의 경우 수개월전부터 행사를 알리는 데 반해 이번 비엔날레는 개막 바로 전까지도 이렇다할 홍보가 없었고 특히 분위기를 선정하기 위해 가장 많은 보도자료와 이벤트들을 쏟아내는 행사 초반 홍보활동도 미흡했다. 전시 도록 역시 실제 전시된 작품 사진을 실기 위해 ‘사후도록’을 발간하는 건 이해되지만 행사 후 한달여나 지난 시점에 발간된 점은 문제가 있다.

전시 총감독 선임 시점을 앞당기는 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필수요소다. 올 행사를 치른 이길형 감독은 지난해 11월 임명돼 전시 준비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시주체 설정, 큐레이터 구성, 작가 섭외 등 수많은 일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 특히 해외 작가 초청의 경우 각 나라에서 편딩을 받을 수 있지만, 최소 1년 전에는 제안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길형 총감독은 “총감독을 최소 일년 전에는 위촉해 주제 등 전시를 구상하게 하고 해외 작가 섭외 후 각 국 대사관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효율적인 홍보와 판촉 활동을 총괄할 전문 마케팅 큐레이터를 선임해 티켓 판매 및 기업 후원과 편딩, 해외 프로그램 편딩 등을 강화해 주어진 예산보다 풍부한 전시가 기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광주시립미술관 레지던시 교류 입주 작가 성과발표전

안네 파이퍼·베른하르트 크로잇처

4~11일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리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국제레지던시 교류 입주 작가 안네 파이퍼와 베른하르트 크로잇처(사진)의 성과발표전을 4일부터 11일까지 광주시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리곤에서 개최한다.

‘Duet, 듀엣’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두 사람은 2개월간 광주에 머물면서 작업한 영상작품 ‘Walking through Gwangju’, ‘Badminton Solo’,

‘Swing’을 비롯해 독일에서 제작했던 영상작업까지 선보인다.

독일 뮌헨을 기반으로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 이들 작품의 중심 요소는 ‘움직임’으로 비디오, 비디오 설치, 키네틱 사운드 오브제 및 설치 작품을 통해 주제를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다.

독일 뮌헨 문화부를 통해 파견된 두 사람은 지난 9월 초부터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성과발표전은 그동안 지역 문화예술기관 탐방, 서울 문화탐방, 지역작가들과의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 지역 작가로는 한국화가 윤세영, 정광희 작가가 현재 독일 뮌헨 문화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개막행사는 4일 오후 5시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페라·가곡 등 다양한 장르 무대

광주시립합창단이 7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제181회 정기연주회 ‘이 가을, 나의 삶을 노래하다’를 개최한다.

이날은 김인재(사진) 지휘자의 첫 정기 연주회 무대로 합창보다 각 단원의 기량이 돋보이는 독창·중창에 중점을 두고 오페라, 민요, 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무대에 올린다. 이날은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 몰래 흐르는 눈물’, 마스네의 오페라 ‘베르테르’ 중 ‘나의 눈물이 흐르게 하라’, 울리우스 베네딕트



의 ‘카페레라’ 등을 독창으로 선보이며, 가곡 ‘베를 노래’를 여성 3중창으로 공연하는 자 리도 마련된다. 공연 마지막 순서로는 마크 헤이즈의 ‘그대는 결코 혼자 견디지 않으리’를 합창으로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소프라노 표현진 등 16명의 성악가가 무대에 오르며 권현, 임리라가 피아노 반주를 담당한다. 전석 1만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립합창단 7일 문예회관서 정기연주회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특별 월 회원 모집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 클럽

개인 (월) ₩ 300,000

회원특전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10% 할인
- 객실 이용시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